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 02-555-1946/ 010-5235-1946 메일: snuarta@naver.com 밴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1 본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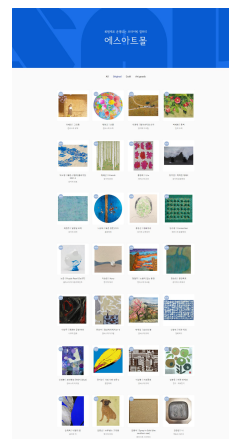
▲제76회 전기 학위수여식을 맞아 정문에 설치된 아치 현수막

설날맞이 선물 전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회장 권영걸)는 설날을 앞둔 지난 1월26일 모교 경비실 및 미화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정성을 담은 작은 선물을 준비해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본회는 지난 2019년 권영걸 회장 취임 이후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에 모교 근로자분들에게 감사선물을 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동창회 선릉오피스가 입주하고 있는 아남타워의 경비실 근무자분들에게도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온라인갤러리 에스아트몰 개설



본회 산하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 온라인갤러리 에스아트몰을 개설했다. 에스아트몰은 에스아트플랫폼 회원들의 작품과 아트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함으로써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프라이빗 온라인갤러리이다. 우선은 회원제로 오는 3월 중에 서울대 동문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게 되며 추후 등록작가를 확대하고 일반대중에게도 오픈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미술인 창작활동 지원, 대중 및 미술애호가들을 위한 전시·교육사업 등 사회적 기여활동에 쓰이게 된다.

서울대 소식



SNU-IR 데모데이 개최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SNU-IR 데모데이'를 지난 1월 26일 서울대 창업지원단과 산학협력단의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SNU-IR 데모데이'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성공적 시장진출을 위해 IR자료 제작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서울대 창업지원단이 지원하는 'SNU-IR'은 맞춤형 IR전략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하고, 3개월 이상 기업별 IR자료 제작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은 'SNU-IR 데모데이'를 통해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얻는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장과 창업지원단장, 또한 동문창업네트워크의 일환으로 BSK인베스트먼트, 트리스톤자산운용, 케이스톤파트너스, LSK인베스트먼트,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 등 서울대동문VC 대표 및 임직원 17명이 참관했다.

전기 학위수여식

제76회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위수여식 영상은 서울대 홈페이지 및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 스트리밍 재생 방식으로 송출됐다. 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574명, 석사 1,079명, 박사 630명 등 총 3,283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은 사전영상, 음대 축하공연, 총장식사, 학사보고, 축하, 졸업생 대표인사, 축하, 교수합창단의 합창, 학생추억사진순으로 진행됐다. 졸업생들은 2월 한 달 동안 정문에 설치된 아치 현수막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영화학 연계전공 신설추진

서울대는 최근 인문대 미학과를 중심으로 영화학 연계전공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영화학 연계전공은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영화 관련 강의 10여개에 신규 과목 3~4개를 추가해 총 13~14개의 상설 과목을 갖춘 이론 중심의 과정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연계전공 과정은 이론수업 외에도 영상제작실습, 시나리오작법 등 실기과목도 새롭게 개설할 방침이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매체가 문화를 이끌게 된 시대 흐름에 따른 재학생의 영화학 관련 수요를 반영해 연계전공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대는 "이미 개설된 과목들을 활용해 연계전공을 꾸리는 방식이라 큰 비용과 시간이 들지는 않는다"며 "영화제작 등 실기과목은 외부인사 초빙 형태로 시행할 것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연계전공 개설 신청과 승인이 이뤄진다면 올해 2학기부터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제15회 중앙도서관 작은전시회<무無턱대고 평등한 지도>

기간 : 2022. 2.7-4.30 (07:00-23:00)

장소 : 중앙도서관 관정관 1층 관정갤러리

주관 : 서배공(서울대학교 배리어프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 :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의원 김민석), 서울대 중앙도서관

문의 : 02)880-9374, libplan@snu.ac.kr

'무無턱대고 평등한 지도'는 휠체어를 탄 손님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가게 앞에 턱이 없거나 경사로를 설치해 둔 가게를 모아 제작한 지도를 의미한다. 2021년에 결성된 '서배공'은 서울대 인근 샴수길 상권 800여 곳의 배리어프리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리어프리맵 '샴수잡을지도'를 제작했다. 전시는 지도의 제작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

친환경 캠퍼스를 꿈꾸는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서울대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ESG 경영이나 환경친화적 기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젝

트를 진행 중인데 그 중심에 지속가능발전연구소가 있다. 2009년 본부 직할 연구기관으로 출범한 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연구활동은 물론 다양한 학생참여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연구활동은 환경대학원뿐만 아니라 여러 단과대 교수진으로 꾸려진 위원회와 연구원들로 이루어진다. 2014년부터 매년 작성하고 있는 그린리포트에는 관악캠퍼스와 연건·평창·시흥캠퍼스, 수목원, 목장까지 서울대에서 지난 1년간 소비된 에너지와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이 장소별로 제시되며, 시행 중인 에너지절약사업의 진행 과정이나 효과가 명시되어 있다.

학사·석사·박사 통합 연계과정 신설

서울대에 학사·석사·박사과정을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통합 연계과정이 신설된다. 연구에 뜻을 둔 학부생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해외대학원 인재 유출을 막고 자교 대학원 진학을 장려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한다. 지금까지 서울대는 학사·석사 연계과정과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해왔다. 신설되는 학·석·박사 통합 연계과정은 8년 이상의 수업 연한에서 1년 6개월 범위 내 단축이 가능하다. 새로운 통합 연계과정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서울대는 학칙 공포 후 단과대별로 학·석·박사 통합 연계과정 개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면으로 돌아오는 축제



서울대는 이번 학기부터 다시 대면 수업 형태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서울대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축제하는사람들(이하 축하사)' 역시 대면 축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축하사는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축제의 장을 만들고 있다. 재학생을 주축으로 행사팀, 공연팀, 디자인팀, 홍보팀으로 나누어진 축하사는 오랜만에 진행되는 대면 축제인 만큼 기존 대면 축제 방식과 작년 진행되었던 온라인 축제의 방식을 융합할 예정이다. 버들골에서 함께 밤을 새는 심야캠핑, 장터, 미니게임, 방탈출게임과 같은 이벤트도 기획 중이다. 동아리의 댄스, 밴드, 보컬 공연 및 게임대회 역시 대면으로 전환하고 폐막제의 동아리 합동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 공연 중계, 굿즈 판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감염 불안을 줄이고 원거리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2022 규장각 특별기획전 <고지도로 본 서울>

기간 : 2022. 1.24-5.4 (평일 10:00-17:00)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시실 B1

문의 : 02-880-5318

국내 최대 고지도 소장기관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통칭 규장각)이 서울의 고지도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 중이다. 전시는 서울의 옛 모습이 담긴 다양한 고지도를 선보임으로써 서울의 어제와 오늘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규장각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회장추대위원회 구성

제29대 총동창회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추대위원회(이하 회추위) 제1차 회의가 지난 1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무(63기계공학·총동창회 고문·제24대 서울대 총장) 학술원 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은 왕규창(73의학)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번 회추위는 이희범 회장이 상임부회장 중에서 지명한 12명과 본회 권영걸 회장을 비롯한 당연직 부회장(단대 및 대학원 동창회장)들이 당연직 부회장 중에서 선출한 12명,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지명한 3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엔 그중 21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차기 회장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회추위는 회장 후보 지원 및 추천 공고를 내고 1월 17일부터 1월 28일까지 접수 받은 후 2

월 2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회장 후보를 선정한다. 그후 3월 초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3월 28일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감사 또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회추위는 신임 회장 선출 시까지 활동하며, 회장 후보의 모집 및 확정, 서면심사, 선정 및 추천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회공헌위원회 시동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산하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변주선)가 올해 3월 말까지 지원 대상 후보를 선정하고 4~5월에 심사 및 최종 선정을 거친 다음 하반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공헌위원회가 작년 12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규정과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희범 회장이 제시한 총동창회 4대 슬로건 중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의 실현을 위해 2020년 11월 발족했으며 총동창회 사회공헌활동의 추진 방향 및 중요정책을 심의, 결정한다. 총동창회가 서울대를 거치지 않고 사회에 직접 공헌 활동을 펼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변주선(60영어교육)·류 진(78영문) 공동위원장, 김종훈(건축69) 수석부위원장, 이윤경(간호65)·허영(간호70)·이순형(농공70)·심문규(언어71)·문형주(치의학79)·방문신(경영82)·신계용(사회복지82) 위원과 이희범(67전자공학) 회장, 이승무(72경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1시간여에 걸친 논의 결과 서울대 동문, 어린이 난치병 치료, 서울시 교육청 협력사업, 문화예술인, 사회공헌 행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

- 일시 : 3월 28일 (월) 오후 5시
- 장소 :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서울 삼성동, 봉은사 건너편)
- 행사내용 : 정기총회, 관악대상 및 공로패 시상 등
- 참석범위 : 3월 11일 (금) 까지 사전예약하신 동문 299명 이내
*평생회비 또는 2022년도 연회비를 내주신 분에 한함
회비계좌 신한은행 140-001-180304(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사전 예약 및 문의 : 대표전화 02-702-2233 문자 1877-2039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c.kr

3월 조찬포럼

- 일시 : 3월 10일 (목) 오전 7시 30분
- 장소 :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서울시청 앞)
- 강연자 :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주제 : 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 참가인원 : 50명 이내(선착순)
- 참가신청 :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c.kr
- 참가비 : 5만원 / 1년간 40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3월 수요특강

- 일시 : 3월 23일 (수) 오전 7시 30분
- 장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연자 :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 주제 : 미래의학과 질병예측-나의 게놈 이야기
- 참가인원 : 50명 이내(선착순)
- 신청기간 : 3월 1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참가신청 :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c.kr
- 참가비 : 무료 (음료 및 도서 제공)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까지(문의 : 02-702-2233)
- 참가신청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c.kr로 접수
- 참가비 : 신한은행 140-013-055887(서울대총동창회)
입금시 성함과 입학연도 표기
- 신청문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전화 02-702-2233
- *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올해 동창회비를 납부한 분만 신청 가능



서울대미술관 소식

밤을 넘는 아이들

전시기간 : 2022. 1.13-3.13 (10:00-18:00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 서울대학교미술관 전시실 1-4
전시작품 : 회화, 사진, 설치, 영상 등 100여 점
참여작가 : 고경호 권순영 김수정 나광호 노경화
민진영 성희진 신희수 왕선정 정문경
주 최 : 서울대학교미술관
문 의 : 02-880-9504

회비납부안내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1.1-2.24)

일반회비

- 김경애(83동양) ●김선영(86동양) ●여지수(08조소) ●유병익(82회화)
- 유부강(61회화) ●윤태자(62회화) ●임채욱(95동양) ●장원경(73응미)
- 정은미(81회화) ●정희균(85공예) ●최관도(57회화) ●최윤영(96동양)
- 최진주(81회화) ●최혜명(61 회화) ●허유진(09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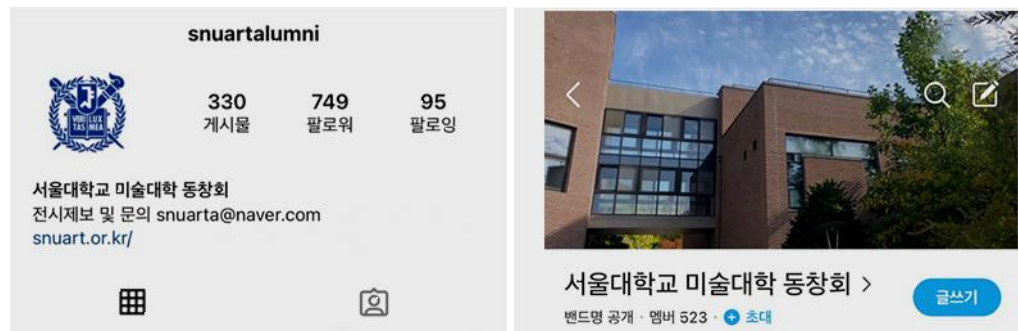
평생회비

- 강민정(99동양) ●곽영진(88산디) ●곽용태(61회화) ●권혜자(62응미)
- 설화영(74응미) ●윤선영(91산디)

부회장회비 ●김창수(82응미)

광고후원금 ●D-pack 200,000원

동창회 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올려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 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회지광고를 통해 기업 또는 단체, 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 고 료
전면	50만원
1/2면	30만원
1/3면	20만원
1/5면	10만원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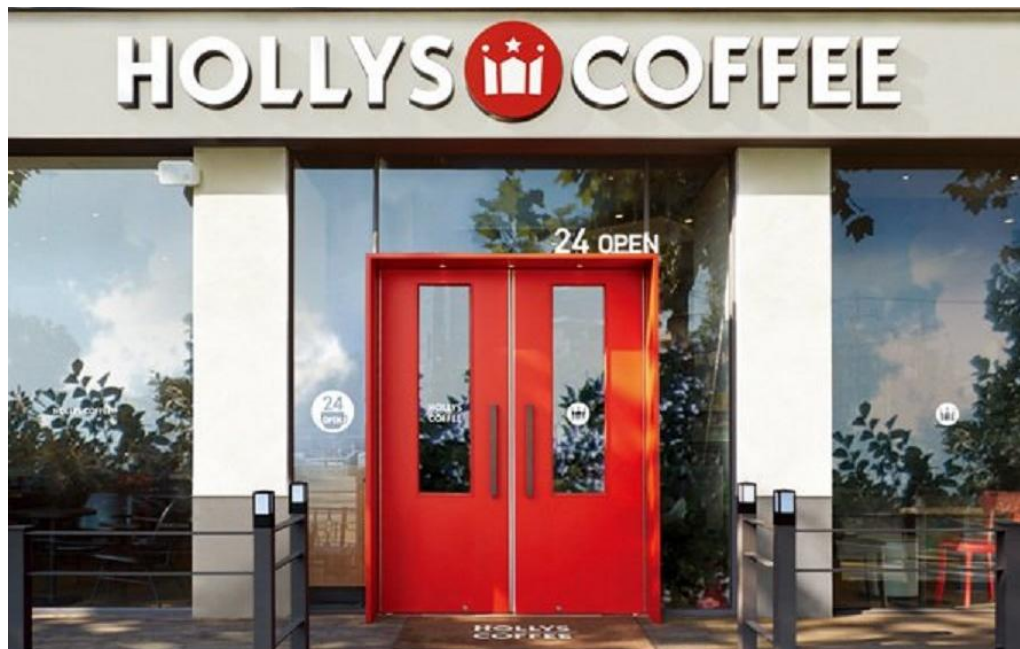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하다.
연락처 : 02-783-7080

취향과 삶, 경험까지 디자인한다

최소현(95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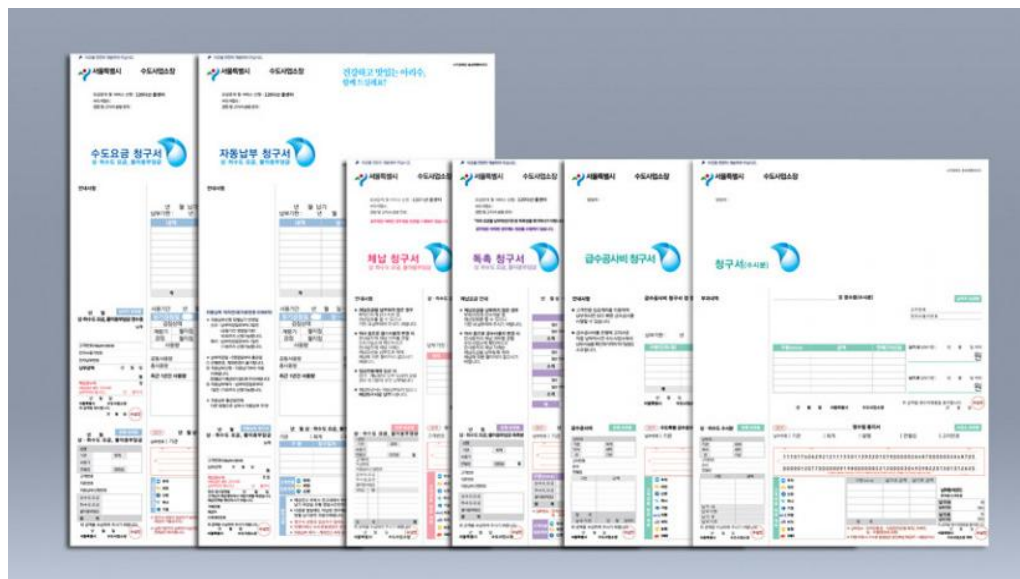
최소현 동문이 운영하는 퍼셉션은 패키지 디자인과 브랜딩, 디자인 역량 강화를 포괄하는 크리에이티브 컨설팅그룹으로 명성을 쌓아오고 있다. 2002년 제품디자인으로 시작해 할리스커피 BI, 세운상가 리뉴얼 사업, 켈로그 패키지 디자인, 서울시 수도요금고지서 개선 등과, 롯데아울렛 타임빌라스, 롯데캐슬, C, 올리브영 등 여러 공간에 특별한 가치를 입힌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왔다.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선정됐고 디자인회사와 소기업으로는 최초로 디자인컨설턴트 사내자격증을 개발해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았다. 퍼셉션은 브랜드 경험 디자인, 기업의 디자인 전략 수립 등을 주로 한다.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그에 적합한 디자인을 만든다. 또 기업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콘셉트를 잡아 구체화해 준다.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자동차를 스케치하며 어린시절을 보낸 최동문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나와 2000년에 모교 산업디자인학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문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온라인 모임 서비스의 원조로 불렸던 인터넷 사이트 프리챌에서 디자인팀장으로 일하다 2002년 퍼셉션을 창업했다. 2013년부터 4년간 서울디자인컨설턴트로 활동했고 2017년부터 플레이스캠프제주 크리에이티브디렉터를 맡고 있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 공로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겸임교수, 청와대 대통령실 PI 자문위원,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 디자인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퍼셉션 대표이사,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이사, 서울시 디자인컨설턴트,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 컨설턴트, 할리스커피 디자인 고문, 한국디자인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퍼셉션을 100년기업으로 키우고 싶다는 최동문은 디자인으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꿈이며, 이를 위해 늘 소몰영추(소통.몰입.영감.추진)하고 있다.



할리스커피 브랜드 개선

한국최초 커피 전문 브랜드 할리스커피의 브랜드 개선 작업에 참여했다가 공간까지 다 바꿨다. 보이는 것만 바뀐다고 다 바뀌지 않는다. 할리스를 바꾸면서 '남길 것은 남기고, 버릴 것은 버리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최대한 살려보자'는 관점으로 브랜딩을 진행했다. 할리스커피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임직원 인터뷰,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 할리스 하면 떠오르는 '빨간색'과

'왕관' 두 가지만 남기고 다 바꿨다. 문을 빨간색으로 만들어 상징색을 극대화하고 왕관을 전면에 배치했다.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것보다 할리스커피를 상징하는 것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두웠던 마감재를 덜어내고 조명과 가구를 활용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밝고 편하게 바꿨다. 바리스타와 고객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바리스타존도 바꿨다. 지역과 상권에 따라 가구를 달리 배치하고, 가구의 높낮이를 다르게 해 입체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한편 할리스의 이름과 심벌에는 의미가 있는데, 이름은 열정적이었던 미국의 어느 바리스타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심벌에는 양옆 두 명의 사람이 보이는데 이는 바리스타가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한잔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수도요금고지서 개선

2014년부터 2년 간 진행한 수도요금고지서 디자인 작업은 사용자 중심의 고지서를 만들고자 해외 사례, 특히 영국의 수도요금고지서 연구를 많이 했다. 단지 예쁜 것을 만드는 것이 디자인이라는 관념을 깨부수고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디자인을 새로 하면 징수 체계와 인쇄 시스템까지 바뀌야 해서 원하는 만큼 다 바꾸지는 못했지만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으로 바꿨다. 그 결과 기존 수도요금고지서보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개선된 사용성으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세운상가 리뉴얼

2017년 재개장을 앞둔 세운상가의 간판 리뉴얼 작업을 했다. 간판을 새로 만드는 대신 먼저 상인들을 설득해 대청소를 했다. LED 간판으로 교체하려던 돈으로 외벽과 실외기를 청소를 하고 튀어나온 파이프를 자르고 구멍 난 곳을 메워 분위기를 바꿨다. 과거 한국 전기·전자산업의 메카였던 만큼 오래된 간판은 살리되, 흉물스러운 공사 잔해는 지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처음에는 차가웠던 세운상가 상인들의 반응도 서서히 바뀌었다. 오래된 건물을 무조건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돋보이게 만들으로써 더하는 것만 디자인이 아니라 빼는 것도 디자인임을 실현했다.



이마트 블랙이오 프로모션

2018년 이마트의 프리미엄 신선식품 '저스트 프레시' 브랜드 작업을 했다. 이어 이마트 창립 25주년을 맞아 할인행사가 아닌 쇼핑축제를 열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쇼핑 비수기에 블랙프라이데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년 할 수 있는 즐거운 행사를 만들고자 '블랙이오' 타이틀과 콘셉트를 기획했다. 한 달 내내 블랙이오 행사를 진행했는데, 판매 실적보다는 소비자와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모션 작업을 했다. 세련된 백화점 쇼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의 매력을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자문밖 아트레지던시’ 10억원 후원 홍라희(63응미)



본회 고문 홍라희 동문이 지난해 12월 자문밖문화포럼에 10억원을 후원하였다. 평창동과 기동·부암동 신영동·홍지동 이렇게 종로구 5개 동은 자하문 바깥을 뜻하는 ‘자문밖’ 동네로 불린다. 문화예술인이 다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고 70여개의 미술관과 박물관이 자리해 문화예술 마을로 불린다. 자문밖문화포럼은 이러한 자문밖 지역의 풍요로운 문화예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자문밖차의예술마을’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12년 종로구의 적극적 후원 아래 출범한 비영리 사단

법인이다. 종로구는 그간 사단법인 자문밖문화포럼과 함께 ‘자문밖 문화축제’나 ‘문화거리’ 조성, 미술관 100개를 짓는 ‘자문밖미술관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지난 2월 9일 2기 출범식을 가진 ‘자문밖아트레지던시’도 대표 사업 중 하나로, 다양한 문화예술인에게 창작공간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과정이다. 선정된 다양한 분야의 13개 팀 15명 작가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레지던시 내 공간을 제공받고 관내 소상공간·공방을 대상으로 창작활동을 진행하는 ‘로컬아트프로젝트’,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홍동문의 후원금은 신진 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레지던시 운영 자금으로 값지게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홍동문은 삼성문화재단 이사, 현대미술관회 회장, 호암미술관 관장,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을 지낸 바 있다.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총괄감독 위촉 김양수(69회화)



경기도 포천시는 지난 2월 7일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사업’의 총괄감독으로 김양수 동문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문화예술 전문기획사인 (주)인터아트채널 대표로 재직 중인 예술가이자 전문경영인이다.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사업은 오는 2022년 3월 폐교 예정인 영평초등학교에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소공연장, 창의·창작 개발 공간 등을 조성한다. 창작소는 청소년과 시민 등에게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2023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향후 포천시는 김동문을



주축으로 지역예술인 등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발굴하여 특화된 교육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경기북부의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으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김양수 총괄감독의 역량으로 폐교 시설이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교육공간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유기적인 협업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문은 1970년대 말부터 해외 미술작품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선보였던 두손갤러리를 서울 동숭동에서 운영하다가 1990년대 중반 미국으로 이주해 화랑을 운영했었다.

전통춤의 길 김경란(75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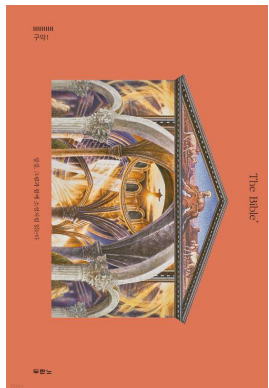


김경란 동문은 전통춤을 전승하고 공연하는 서울교방을 이끌며 춤으로 관객과 소통한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김동문이 이끌고 있는 서울교방은 전통 중에서도 예술인 육성 관청이었던 교방청에서 행했던 춤을 계승, 현대화, 해체해서 공연하는 단체다. 김동문과 70여명의 제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서울교방은 단순한 무용단이 아니라 무용인들이 서로 컨설팅해주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조각가의 꿈을 안고 모교 조소과에 입학했지만, 학업 대신 탈춤에 빠진 김동문. 시위대



의 선두에서 탈춤을 추다가 국문학과 동기와 사랑에 빠졌고, 대학 4학년 때 그가 감옥에 가게 되자 옥중 결혼식을 올리며 학생운동과 옥바라지를 위해 모교를 자퇴했다. 이후 만신 김금화의 내림굿을 받고 경남 진주의 명무 김수악(1926~2009) 선생에게 20년간 춤을 사사받으며 전통춤에 뿌리를 내렸다. 김동문은 자신의 춤, 나아가 서울교방 춤의 특징은 힘을 빼는 것들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흐름에 맡기는 것. 지난 한 고난의 세월동안 잠재되어 있던 슬픔과 고통이 승화되어 무심하게 비워지는 것, 흐름에 따른 자유를 구가하는 것이라고 한다.

‘The Bible+: 구약 1 율법서’ 출간 변영혜(78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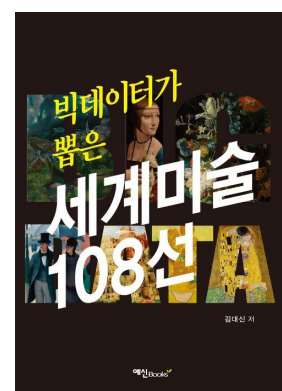
변영혜 동문의 작품 12점이 수록된 성경책 ‘The Bible+: 구약 1 율법서’가 두란노서원에서 출간되었다. ‘The Bible+’는 미술작품과 함께 소설처럼 읽는 컨셉으로 기획한 성경으로 온라인(교보문고, 영풍문고, 두란노몰 등)과 오프라인 서점(두란노서점,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에서 판매중이다. 성경읽기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각 절 구분을 없애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구성하였으며 또 한 변동문의 회화 작품을 함께 수록하여 성경을 예술적인 상상력과 함께 읽을 수 있게 한 것 역시 신선한 시도다. ‘The Bible +’ 구약1권의 출간을 계기로 해당 성경책에 수록된 변동문의 작품 ‘엘림의 축복’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주일예배에서 오정현 담임목사의 설교에 인용되며 소개되었다(왼쪽사진). 한편 변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하였으며 모교 및 경희대학교 강사를 역임하였다. 현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0년대부터 복음의 메시지와 성경을 담은 작품활동을 펼쳐왔다. 미국 Harvard University Divinity School, 영국 Wesley Church, 러시아주재 대한민국대사관, 극동방송국, 서울대학교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빅데이터가 뽑은 세계미술 108선’ 출간 김대신(87서양)

김대신 동문의 신간 ‘빅데이터가 뽑은 세계미술 108선’이 출간됐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오늘날은 끊임없이 정보가 재생산되는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김동문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한 108개의 미술 작품의 제작 배경, 기법, 관련 신화, 양식, 작가의 생애, 세계사적 의미 등을 책 한 권에 풀어내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술가의 삶과 작품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담았다. 독자는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세계미술 걸작들을 통해 과거가 남긴 발자취는 물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깨



닫게 될 것이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졸업후 선화예고에서 미술부 실기 지도를 하다가 프랑스에서 8년 동안 유럽 미술과 문화를 연구하면서 미술사석사 및 문화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작품활동을 하며 여러 미술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관악문화원, 용산청소년수련관, 북촌마을서재, 덕소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수업을 진행했다. 현재 연구공간 A.LAB Seoul에서 미술과 문화를 중심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글쓰기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수사본의 역사와 이해’가 있다.

‘포브스코리아 2030 파워리더’ 선정 유현경(05서양)



유현경 동문이 경제지 포브스코리아 선정 2022년 2030 파워리더 20인에 선정되었다. 포브스코리아는 해마다 테크핀 & 딥테크, IT-컨슈머, 패션 & 뷰티, 아트 & 컬처 등 네 부문에서 차세대 2030 리더들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관련 업계 CEO, 벤처캐피털 관계자, 학계 등 전문가 집단에서 심사위원 39명을 위촉했고, 이들이 추천한 후보자 총 163명 중 영광의 얼굴 20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20명은 포브스코리아 2022년 2월호를 통해 공개되었다. 아트&컬처 부문에서 선정된 유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 후 동 대학원을 수료하고, 15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는 베를린을 주요 거점으로 삼아 서울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유 작가

베니스비엔날레 참여작가 선정 이미래(08조소)



설치미술가 이미래 동문이 오는 4월 23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개막하는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참여작가로 선정됐다.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미술제로 ‘미술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베니스비엔날레는 매 홀수해 열리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난해 열렸어야 할 행사가 올해로 연기됐다. 국가관을 운영하고 있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크지만, 비엔날레 총감독이 직접 기획하는 본전시 참여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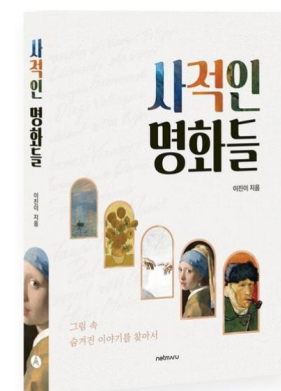
은 더욱 높다. 올해는 뉴욕 하이라인파크의 예술총괄 큐레이터 세실리아 알레마니가 총감독으로 선정돼 ‘꿈의 우유(The Milk of Dreams)’를 주제로 전시를 꾸민다. 본전시 참여작가 이동문은 인체의 변형, 신체와 지구의 연결 등의 전시 테마를 구현할 작가들로 평가된다. 한편 이동문은 인간과 행위, 인체나 동물의 기관 등을 기괴하면서 움직이기도 하는 ‘개념적 조각’으로 형상화 한 특유의 작업으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2016년 서울 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년 광주비엔날레, 2019년 리옹비엔날레 등에 참여했고, 일민미술관·아트선재센터 등의 기획전에 함께 했다. 2017년에는 국제갤러리의 신진작가 발굴을 위한 ‘스노우플레이크’전에 포함됐고, 2020년에는 아트선재센터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프랑스 파리 시테,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등의 레지던시를 거치며 도약했고 2018년 네덜란드의 라익스아카데미에서 수학한 것을 계기로 지금은 암스테르담과 서울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사적인 명화들’ 출간 이진이(10동양)

‘사적인 명화들’은 이탈리아와 바티칸시국,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 만난 거장 열세 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진이 동문은 언택트 시대를 맞아 책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자는 취지를 책에 담아냈다. 르네상스부터 야수주의까지 한 번쯤 들어봤을 회화 걸작을 중심으로, 화폭에 만연한 소소하지만 흥미로운 내용이 녹아 있다. 이동문은 세계 곳곳의 유명 미술관과 예술가의 흔적이 남은 곳을 두루 여행하며 그들이 걸었던 길을 걷고, 그들이 눈에 담았던 풍경을 포착했다. 책은 오래도록 마음을 울리는 명화 이야기를 통해 답답

한 일상을 벗어나 생경한 두근거림과 설렘을 전달한다. 이동문은 예술가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면 그림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살필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면서 예술과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바라는 마음을 책에 담았다. 한편 이동문은 삼성 사내커뮤니티에 ‘홀로 떠나는 고전 여행’을 기고하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작가의 집으로’를 집필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알프레드대학교에서 순수미술 석사과정을 지내면서 한국과 미국, 독일에서 활동 중이다.

한 일상을 벗어나 생경한 두근거림과 설렘을 전달한다. 이동문은 예술가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면 그림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살필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면서 예술과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바라는 마음을 책에 담았다. 한편 이동문은 삼성 사내커뮤니티에 ‘홀로 떠나는 고전 여행’을 기고하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작가의 집으로’를 집필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알프레드대학교에서 순수미술 석사과정을 지내면서 한국과 미국, 독일에서 활동 중이다.



송은미술대상 수상 권아람(박사16디자인)



권아람 동문이 ‘제21회 송은미술대상’에 선정됐다. 송은미술대상은 송은문화재단이 국내 유망한 젊은작가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시행하는데, 올해는 송은문화재단 신사옥에서 작년 12월 10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선정작가 20명의 전시를 개최하고, 전시기간 동안 심사를 거쳐 한 명의 수상자를 선정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 작가로 선정된 권동문은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개인적인 경험과 사념에서 시작된 텍스트와 언어, 미디어에 대한 구조적 사유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을 선보여 왔다. 이번 대상작인 ‘Walls’는 스크린 자체의 물성을 형식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특성들을 변주하여 이미지를 실험적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세상에 거리감을 두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지켜보며 때로는 뽀족하게 때로는 거시적으로 고민하며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권동문은 건국대 디자인조형대 광고영상디자인전공 졸업 후, UCL런던대 슬레이드미대 파인아트-미디어 석사와 서울대 대학원 디자인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선정됐었다.

‘완전한 이름’ 출간 권근영(박사00미술경영)

권근영 동문이 ‘완전한 이름-미술사의 구석진 자리를 박차고 나온 여성 예술가들’을 출간했다. 기자이기에 앞서 미학자, 여성인 저자가 앞선 시대의 여성 예술가와 현대사회의 여성들을 연결시켜 풀어냈을 뿐 아니라, 동시대 여성작가들을 직접 만나 나누었던 인터뷰 내용도 담았다. 기자를 하며 만난 미술가들, 대학과 미술관 강의 때 만난 미술에 대한 열정 가득한 사람들, 또 세계 곳곳으로 취재를 다니며 접한 명작들이 삶의 어두운 순간을 ‘반짝’ 밝혀주는 빛으로 돌아오곤 했다. 이 책은 바로 그 순간의 나눔이다. 초등학교 시절 이



동도서관이 오는 날만 기다렸고, 중학생 때 장래희망이 3면이 책으로 둘러싸인 방에서 사는 것이었던 권동문은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과 미학을 전공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MFA 첨자 처리)와 미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기자가 됐다. 이후 10년 넘게 미술문화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중앙일보에 칼럼 ‘그림 속 얼굴’ ‘권근영의 숨은그림찾기’를 연재했고, 지은 책으로 ‘나는 예술가다—한국 대표 예술가 10인 창작과 삶을 말하다’가 있다. 현재는 JTBC 스포츠문화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현대금속공예 아카이브기획전 강찬균(57응미)



금속공예 분야 1세대 작가 강찬균·유리지(64응미/1945-2013) 동문 등이 제공한 자료 200여점을 중심으로 초창기 한국 현대금속공예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애썼던 젊은 공예가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공예박물관 공예아카이브 실은 2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현대금속공예를 주제로 한 아카이브 기획전시 '한미금속공예워크숍: 참가신청 링크가 열렸습니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금속공예 역사에서 큰 전환이 있었던 1980~90년대 금속공

예 1세대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추진됐던 1986년의 '한미금속공예워크숍' 등 국제교류행사를 집중적으로 재조명한다. 전시에서는 당시 워크숍의 주요 강의였던 강찬균 동문의 '한국의 현대 금속작가들'에 사용된 슬라이드 필름 및 원고를 비롯해, 미국 금속공예작가 레베카 라스킨의 '철보 드로잉 기법', 로버트 쿠간의 '다마스쿠스 강철 제작기법'의 아카이브 자료와 실제 도구·재료를 선보인다. 과거에 열렸던 워크숍 현장을 현재의 전시공간으로 재현해 관람객에게 워크숍에 참가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한국의 현대금속작가들'이란 주제로 진행된 강찬균 동문의 강의는 자기 자신을 한 명의 작가로 등장시켜 금속공예가로서의 성장과정과 금속공예분야의 사회적 여건 및 미술교육 상황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엮어 소개함으로써 금속공예의 발전 과정과 현황, 주목할 만한 작가를 조명했다.

이 시대의 거장전 장성순(48회화/1927-2021)

지난해 작고한 장성순 동문의 작품전이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안산 꿈의교회내 더갤러리에서 '이 시대의 거장전'이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한국추상미술의 선구자인 장동문은 해방 이후 한국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첫 세대이며, 한국현대미술의 여명기에 추상미술의 중심역할을 한 1세대 추상화가로 모교에서 김창렬(48회화), 이용환(48회화) 동문 등과 함께 수학했다. 장동문은 예



술형식에 있어 동양의 정신적 전통과 서양화의 구조적 요소를 절묘한 균형으로 완성시킨 작가로, 그만의 내면적 풍경과 시선을 다양한 정서로 표현해냈다. 장동문은 30년 가까이 안산에서 작품활동을 하며 안산미술협회 고문, 단원미술제 조직위원, 단원미술대전 서양화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미술문화발전에 기여했다. 2017년 안산시에 작품 207점을 기증했고, 2018년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했다.

형진식 초대전 형진식(69회화)

형진식 동문의 초대전이 지난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용산구 갤러리 U.H.M.에서 열렸다. 형동문은 1980년 제11회 파리 비엔날레, 1987년 제2회 LA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등 한국 작가들이 해외 활동을 하기 어렵던 시절부터 국제 무대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왔다. 작가인 동시에 교육인인 그는 모교 회화과 졸업 후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1976년부터 2005년까지 후학을



길러냈고, 국립현대미술관, 동덕여대, 이화여대 등에서도 교편을 잡았다. 이일 미술평론가는 "그의 선 하나하나가 마치 충전된 것처럼 공(空)을 가로지르며, 또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지며 그 공을 긋는 행위의 궤적을 흰 종이에 정착시킨다"고 그의 작품세계를 소개했다. 갤러리U.H.M.는 미디어와 신매체의 범람 속에 만나기 힘든 회화분야의 40년 거장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레벨-게임/레벨-로지 홍명섭(72조소)

홍명섭 동문의 개인전 '레벨-게임/레벨-로지(level-game/level-logy)'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천 중구 신포동 차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홍동문은 폭 110cm, 54m의 광목천 6필(疋)로 만든 설치작품 1점을 선보인다. 2층 전시장 천장에서부터 1층 바닥으로 폭포처럼 흘러내린 광목천의 모습이 관람객들에게 시각적인 감동을 선사하게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설치



작품인 '런닝 레일로드(running railroad)'에서 파생된 평면작품 6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은 매주 목,금,토,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오픈된다. 한편 홍동문은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청주시립미술관 관장으로 재직했으며 1995년 46회 베니스 비엔날레 기획전 ASIANA, 2000년 미디어 시티 - 서울, 부산 국제 아트페스티벌, 2016년 부산비엔날레 등 국내외 전시회에 초대된 바 있다.

영원한 공명2-母,馬 이민주(78회화)

한국화가 이민주 동문의 57번째 개인전이 목포 성옥기념관 초대로 오는 3월 16-31일 열린다. '영원한 공명' 시리즈 두번째 전시로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동질성과 상이함, 애증관계를 말과 인간의 비유를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말타기와 모녀간은 말과 인간, 어머니와 딸이 일체가 될수록 그 효과, 그 관계가 좋아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말은 고대부터 인간과 삶의 궤적을 같이했던 전통을 갖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특별한



전통이 이동문의 말에 도입되어 말은 다중적의미를 갖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불교에서 지혜의 문수보살이 타는 코끼리가 그의 혼돈 속에서 당당하게 세상에 등장하며 그의 새로운 삶을 예고한다. 모교와 동 대학원 졸업 후 국내외에서 개인전 56회·아트페어 20여회·단체전 600여회 참가, 창동스튜디오·버몬트스튜디오·스탠드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 한국예술발전상·서울미술작가상·프랑스테일러미술상·일본국제선면전상·미국프린스턴앨터닛츠그랜트 등을 수상했다.

Flow Process 권석만(85조소)

권석만 동문의 개인전 'Flow Process'가 서울 강남구 아트뮤제갤러리에서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열리고 있다. 돌과 철로 만든 부조 등 조각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전북 익산 출신인 권동문은 익산석으로 유명한 광산 근처에서 자라, 돌을 작품 소재로 주로 활용해왔다. 돌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그는 자연의 변화를 주제로 돌과 철을 혼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침식된 강 하류 돌과 스테인리스 판을 통해 자연물이 빛과 시간, 바람에 의해 변



화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한편 권동문은 모교 조소과 졸업 후 중앙대, 홍익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다수의 기획, 초대전 및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그의 작품은 덕양문화체육센터(고양), 서울시립미술관, 용산구청, 여수해양경찰교육원, 익산조각공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는 한국조각가협회, 현대공간회 회원이며, 이화여대와 서울대에 출강하고 있다.

Plain Painting 이강화(81화화)

이강화 동문의 개인전이 2월 18일 부터 5월 29일까지 춘천시 이상원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상원미술관이 소장한 이동문의 대표작과 함께 그가 최근 3년동안 선보인 신작을 전시한다. 이동문이 그려온 작품의 소재는 소박하고 풋풋한 자연의 일부이다. 캔버스, 철판, 나무 등의 기물 위에 표현된 꽃, 풀, 나무 등은 다양한 재료의 혼합으로 인해 화면 위에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드러내곤 했다. 거친 표면, 물감의 두께로 인한 중량감, 적당히 생략되어 추상화된 요소, 이러한 것들이 익숙한 소재가 주는 안온함을 깨고 자극과 쾌



감을 선사해왔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 이동문은 Plain Painting 이라는 전시명에서도 엿보이듯 기교와 재료로 인한 효과를 내려놓고, 평범해 보이는 소재와 기법을 통해 더욱 보편적인 정서와 감성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졸업 후 파리제8대학교 조형예술학 학사와 파리제8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1년 송은미술대상전 미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선영 개인전 김선영(86동양)



김선영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2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인사아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전통회화와 포스트모던에 나타난 시간개념 중 순환 속 생성되는 차이와 반복에 관한 주제를 가졌다. 김동문은 "전통적 시간관은 도가와 불가에 찾아볼 수 있듯이 순환적이고 유기적인 시간관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시간관은 포스트모던의 차이와 반복적 시간관과 연계해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현대적 의미와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견을 바탕으로 하여 동양채색의 맑은 색채의 겹쳐짐을 강조해 자연의 조화력과 생명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내었으며, 견의 비추어지는 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견 아래에 공간을 두어 빛이 내재되도록 했다. 작품에서 투명성과 맑은 표현은 자연의 조화라는 주제를 표현하는데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김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 미술학 박사, 미국 Academy of Art University Fine Art 석사로 현재 홍익대 미술대학원 동양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1999년 워싱턴 주미술협회의 5인의 한미예술인에 선정된바 있다.

부귀영화-꽃 이지숙(88공예)

우리 민화를 불과 흙의 조화로 부활시키는 도예 작가 이지숙 동문의 개인전 '부귀영화-꽃'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서초구 소재 아트버asca프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옛 선비들의 책거리 그림이나 민화를 흙으로 빚어 평면과 입체가 어우러진 부조형태인 테라코타로 재해석해 미술 애호가들과 평단에 주목을 받아왔다. 옛 집안의 액운을 막는 기능을 하며 부의 상징으로 통했던 민화를 예민하게 빚어낸 테라코타에 화려한 아크릴 물감을 여러 겹 올려 재탄



생시켰다. 이동문은 손과 도구가 흙 위를 스치며 만든 수많은 흔적들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입체적인 채색 작업을 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및 동 대학원 공예과를 졸업하였고, 1996년 갤러리 도울 개인전을 시작으로 12회의 개인전 및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백석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중앙대학교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현대도예가회, 토회 회원이다.

투명한 비상전 신수진(91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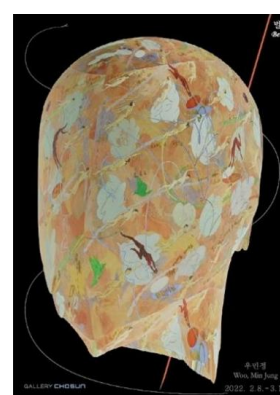


현대백화점 현대문화센터와 갤러리세인이 기획하는 신수진 동문의 초대 개인전-투명한 비상전이 1부(2월 7-28일)와 2부(3월 2-31일)로 나뉘어 현대백화점 판교점 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 작품 '스케노포이에테스의 날개'에서 스케노포이에테스라는 새는 일상적이고 소박한 행위가 예술이 될 수 있음을 표상하는데, 이는 주변의 대상들과 순간순간의 작은 이야기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업에 담아

내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하는 대상이다. 신동문은 자연물에서 나타나는 반복성과 차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회화, 설치, 판화 작업을 진행하는 판화작가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나 잎새와 같은 작은 단위의 이미지를 수백 개씩 그려서 화면에서 새롭게 변주되는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신동문은 서울대 대학원 석.박사, 미국 Wisconsin-Madison대 석사이며 국내외 개인전 19회와 단체전 200여회를 가졌다. 또한 미국 위스콘신 Madison아트센터, 루이지아나 Hill Memorial Library, 유타 Nora Eccles Harrison 미술관, 서울대미술관, 서울대관정도서관, 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진천군립생거문화미술관, 박수근미술관, 대명비발디파크, 피닉스아일랜드, 아이스퀘어호텔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벌 우민정(04동양)

우민정 동문의 개인전 '벌'이 2월 8일부터 3월 1일까지 종로구 북촌로 갤러리조선에서 열렸다. 마판에 흙을 채워 수많은 서사들을 새기는 우동문은 이번 전시를 통해 '시도하는 우리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반복되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지만 내일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코끼리, 뱀, 풀, 무지개, 밧줄과 천막 등은 각 인물들이 바라는 바를 의미하며, 그것은 항상 수직적으



작용하여 언젠가 그 시도를 뛰어넘고자 하는 우리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모교 동양학과 및 공업디자인 학사, 동 대학원 동양학과 석사인 우동문은 2020 ZAHARTIST Project선정, 서울문화재단 창작활동지원(시각분야) 선정, 2018 뉴디스코스 선정작가전 대상, 2018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시각예술분야) 선정, 2017 검재정선 내일의작가 선정, 2014 전국대학미전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17 염포예술창작소 레지던시에 참가했다.

연결된 벽 김지훈(05동양)



김지훈 동문의 개인전 '연결된 벽'이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갤러리가이아에서 열린다. 김동문은 전시에서 새로운 벽을 만들고자 화판을 벗어나 액자에 물감이 올라간 신작들을 선보인다. 이는 새로운 벽을 보여줌과 동시에 액자의 공간감을 깨는 시원함을 보여준다. 김동문의 '연결된 벽' 연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에 대한 작품이다. 촘촘하게 겹쳐지는 선과 면의 교차하는 벽을 상징함과 동시에 사람이 서로 마주 닿거나 이어지는 모습을 상징한다.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이 만나 얹히고설킨 벽들을 구현해내는 김동문의 작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맞닿은 인간관계에 대해 성찰하게끔 만든다. 김동문은 현재 단국대 동양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17회의 개인전과 4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